

선유봉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강 정 숙

1. 오래된 나루 양화도

선유봉이 아직 이름이 없었을 때 선유봉 부근에서 이름 붙여져 기록이 남아 있었던 곳은 양화도(楊花渡, 양화나루)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양화도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지역의 한강 북안에 있었던 나루터'라 하였다. 양화진은 한강에 있던 조선의 삼진 중 하나라고 하면서 양화나루의 의미가 함께 설명된다. 조선시대는 한성을 향하여 난 물길로서 양화나루, 수도를 지킬 진으로서 양화진의 존재가 중요하였다. 그런데 양화진에 대한 이 정의는 조선에 한정되는 것이고 조선 이전의 우리 역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영등포구립도서관과 관련하여 활동하던 이들과 선유봉에 대한 글을 쓰기로 하고 고려사에서 양화도에 대한 자료를 찾고 난 이후 이 글을 준비하면서부터였다. 한국근현대사가 필자의 전공분야라 사실 문헌에서 제공되는 자료 이면의 해석 수준은 알지만, 그래서 더 용감하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 보았다.

양화도 관련한 자료가 고려사(56권 지 제10권 지리1 양광도 부분)에 금주(衿州)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래와 같이 나온다.

금주(衿州)【금(衿)은 금(黔)으로도 적는다.】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잉벌노현(仍伐奴縣)으로,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이름을 곡양(穀壤)으로 고치고, 울진군(栗津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高麗) 초에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성종(成宗) 14년(995)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 목종(穆宗) 8년(1005)에 <단련사를> 없앴다. 현종(顯宗) 9년(1018)에 <안남도호부 수주에> 내속(來屬)하였다. 명종(明宗)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별호(別號)는 시흥(始興)이다【성종[成廟] 때 정하였다.】. 양화도(楊花渡)가 있다.

결국 금주에 양화도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엔 조선에서와 달리 이 지역 한강 북안에 대한 지명이나 특별한 설명이 없이 금주에 속한 남쪽 양화도만 다루었다. 원래 강의 나루터는 한

쪽만이 아니라 강 양쪽을 함께 말한다고 하니 남안의 양화도가 있으니 북안에도 나루터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양화도라 하면 남안보다 양화진이 있던 북안을 더 자주 언급하였다. 그런데 고려시대를 정리한 고려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었을까.

고려 초 양화도가 있는 곳의 행정관할은 금주인데 그 이전에도 나루터 이름이 양화도였는지는 필자가 파악한 문헌자료의 상한선이 이 정도여서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이름은 모르더라도 한강이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만큼 한강을 건널 필요가 있었던 시기부터 이름 없이도 나루터는 존재하였을 것이다. 양화도라는 이름이 기록에 나오는 고려시대 초중기는 이미 나루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조선에는 나루터의 기능이 약화되었던 공암나루가 고려 때까지는 남도에서 송도나 평양으로 가는 지름길 길목에 있었고 이 나루를 건너 덕양, 파주를 거쳐 송도를 갔기에 조선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공암나루는 중요한 나루터였다. 이처럼 시기에 따라 나루터의 용도나 중요도는 변화하였다. 고려의 양화도는, 조선 시대 양화도가 수도 한성으로의 길을 잡아줄 한강 북단의 나루로서 중요시된 것과 달리, 남에서 올라오는 사람이나 물류를 모아서 개성으로 보내줄 남단의 양화도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2. 선유봉에는 언제부터 이 이름이 붙여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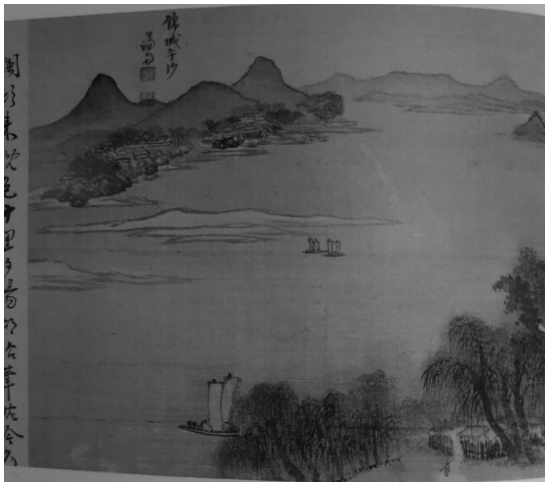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유봉은 고려 자료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조선에 와서 처음 기록이 나온다. 선유봉이란 이름이 언제부터 붙었는지 당대인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조선 전기만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양화도는 고려사에 이름이 나오나 선유봉은 고려시대 자료에선 그 이름을 찾지 못했다. 조선시대에 가면 선유봉은 영등포에만 있던 산 이름이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 같은 이름이 나온다. 주로 신선이 놀 정도로 멋있는 봉우리라는 의미에서 붙여졌을 것이다. 우리 고유의 신선사상 때문일까 중국에서 들어온 도가사상의 영향일까. 이 문제는 다른 장을 이용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영등포의 선유봉에 언제부터 이 이름이 붙여졌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보았다.

국사편찬위원회 등 누리집을 통해 각종 자료를 탐색한 결과 선유봉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은 선조28년(1595년)이었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5일 <접대 도감이 명사(明使)와의 문답을 아뢰다> 부분에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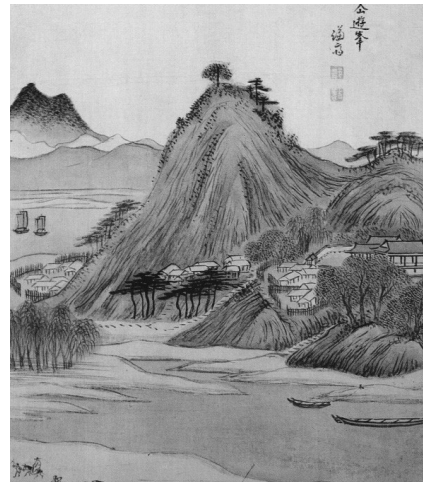
"오늘 양사(兩使)가 양화도(楊花渡)에 이르러 잠두봉(蠶頭峯)에 오르지 않고 곧장 선소(船所)로 갔습니다. 이어 배를 띄우고 물결을 따라 내려가 거의 10리쯤 지나 강마을 절벽 아래에 이르러 배에서 내려 걸어 올라갔습니다. 오랜 비 뒤에 날씨가 새로 개었고 강물이 조금도 줄지 않고 넘실거리 물살이 몹시 세었습니다. 신들은 거슬러 올라가기 힘들고 야심한 시각이 될까 싶어 남호정(南好正) 등으로 하여금 물길이 너무 멀다고 고하게 하였습니다. 양사가 희롱하며 '큰 바다에 이르렀다가 올 때 꼭 강변에서 자겠다.' 하였습니다. 이어 선유봉(仙遊峯)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강산의 풍경이 좋다고 극구 칭송했습니다. 해질 녘에 배를 타고 돌아왔는데 끝내 잠두봉에는 오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하략)"

명나라 사신을 양화도가 있던 한강에서 접대하면서 잠두봉은 오르지 않고 배가 있는 곳에서 타고 내려가 강마을 절벽 아래에 내렸다고 했다. 이는 분명 잠두봉은 아니고 강가이면서 주위에 절벽이 있는 곳이다. 이는 후대의 선유봉 묘사를 통해 추정해 보면 선유봉의 북동쪽 절벽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뒷 시기이긴 하지만 일제시기 선유봉을 묘사하는 글에 북동쪽 양화진을 향하는 쪽은 절벽이었다고 하였다. 1606년 조선에 온 명의 사신 주지번(朱之蕃 ?~1624년)이 지주(砥柱)라는 글을 남겼다는 그 면이다. 다른 쪽은 정선이 1742년경 그린 선유봉과 유사하게 마을이 들어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그림 선유봉 참고). 150년 정도 이전이니 비록 그 정도의 마을은 아니더라도 작은 마을이 형성되고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위 글이 쓰인 1595년에 강마을이 있었고 봉우리는 올라가 술을 마시고 즐길 공간으로서 선유봉이 있었다. 이전에도 군사 훈련을 위해서 망원정과 양화진 부근에 왕이나 왕족들의 출입이 잦은 편이었고 사신과 고관대작들의 놀이공간으로서 서호로 불린 이 한강 일대는 주목받았다. 이러한 과정에 그전에는 없었던 선유봉에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언급할 것이지만 이 이전에도 문인들이 선유봉을 묘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발견되지만 1595년 이전에는 선유봉이라는 이름 자체는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선유봉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를 선유봉이란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익히 알고 있듯이 선유도/봉과 잠두봉은 한강을 두고 마주보듯 있다(그림 금성평사 참고). 조선에 들어와 강 건너의 가을두(加乙頭), 즉 잠두봉은 선유봉이라는 이름이 출현하기도 전에 이미 이름 붙여져 기록에 자주 출현하였다. 이 역시 잠두봉과 그 부근에서 사신 접대한 것과 관련해서이다.



정선의 <금성평사>, 1740년경(?) 간송미술관 소장



정선의 <선유봉>, 1742년경, 고 김충현 소장

그 중 선유봉이라고 판단되는 장소 묘사도 있었다. 태종실록(태종 8년, 1408년)에 명나라 사신 “황엄(黃儼) 등이 양화도(楊花渡) 북쪽 봉우리에서 구경하며 놀았다. 세속(世俗)에서 이 봉우리를 가을두(加乙頭)라고 부른다”라 하였고 태종 17년(1417년)에도 “두 사신이 양화도(楊花渡) 가을두(加乙頭)에서 노니, 예조(禮曹)에 명하여 잔치를 판비(辦備)(후략)”하게 하였다. 한강 중 서강 혹은 서호라고 불렸던 이 지역의 고운 모래 넓은 모래무지가 사신의 눈을 끌었던 모양이다. 나중에 겸재 정선이 금성평사(金城平沙)라는 그림도 남겼듯이 이 주위는 조선의 문인이나 사신들이 글을 많이 남겼다. 명의 한림학사로서 세종32년(1450) 사신을 왔던 예겸(倪謙)과 세조3년(1458) 한림학사 진감(陳鑑) 등이 그러하다. 특히 진감은 양화나루와 선유봉으로 판단되는 봉우리를 아래와 같이 노래하고 있다.

양화 오랜 나루 가장 맑고 그윽한데	楊花古渡最清幽
특출난 기봉이 푸른 물을 베었구나.	特出奇峰枕碧流
술 취해 세상 일 모두 잊었건만	酒醉都拋身外事
빗소리로 나그네 향수 씻기 어렵네.	雨聲難洗客邊愁
비안개 녹수에 어리어 황야는 희미하고	烟和綠樹迷荒野
바람은 구름배 밀어 멀리 보낸다.	風送雲帆落遠洲
이별한 후라고 아름다운 이 모임 어찌 잊으랴!	別後豈能忘勝集
꿈에서라도 마음은 항상 해동에 맴돌 것이다.	夢魂常繞海東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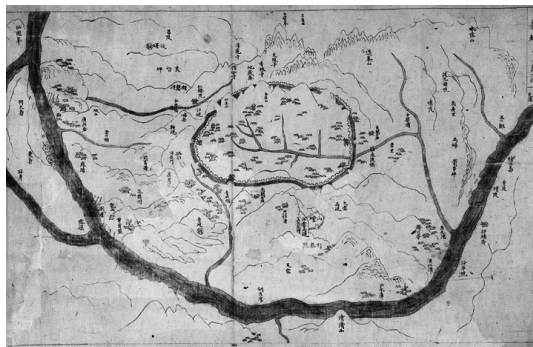
명 사신이었던 진감이 1459년 이 지역을 이렇게 노래한 이후부터 선조28년(1595년) 사이 언젠가에 진감이 “특출난 기봉”이라 표현한 봉우리를 누군가에 의해 선유봉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간송미술관의 최완수 선생은 정선의 <선유봉>에 있는 기와집이 이기설(1558-1622)이 살던 집으로 추정하였다(『겸재의 한양진경』). 그가 일가족과 함께 선유봉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광해군 때이지만 그의 아버지 이지남(1529-1577)때부터 선유봉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선유봉이란 이름이 나온 시기에 이지남 부자가 선유봉과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문인이고 주위에 상당한 인물들과 교류했다. 이름 짓기에 이들이 역할을 하였을까. 고문서들이 좀 더 많이 공개되면 어떤 계기로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조선 후기가 되면 선유봉은 당연히 이름을 가지고 많은 문인들의 글 소재가 되었다.

3. 지도로 본 선유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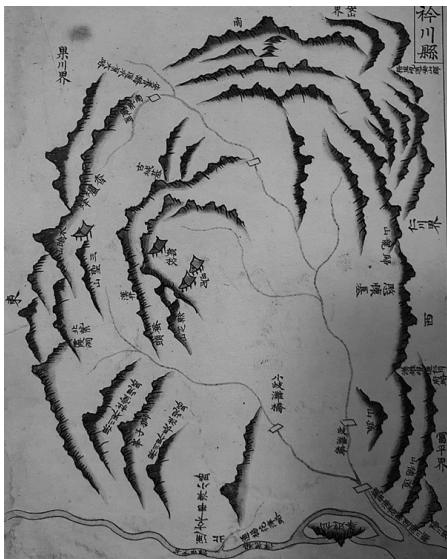
각 지리지나 군현지 앞에 대강 그려서 첨부하던 지도가 18세기 이후가 되면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색채를 담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18세기 영정조시기를 문화가 꽃핀 시기라고 하는데 지도나 지역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면은 확연하게 느껴진다. 선유봉이 그려진 지도를 통해 당시 선유봉의 위치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유봉과 양화도를 다룬 필자 등이 쓴 책『잃어버린 선유봉』, 24-38쪽)을 참고하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는 선유봉이 그려진 몇 개의 지도만 소개하는 것으로 하자.

필자가 파악한 바로 가장 이른 지도는 <자도성지삼강도(自都城至三江圖)>(조선강역총도의 일부)이다. 그려진 시기는 17세기 혹은 18세기 중반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잃어버린 선유봉』에서는 17세기 말로 소개하였으나 이후 연구서에 의거 18세기 중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언급해 둔다. 이 지도의 특징은 도성도의 제일 가장자리(좌측 위)에 선유봉이 등장한다. 이것도 도성도였다면 표시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확장된 영역의 지도로 이런 방식으로 등장하였다. 덧붙이자면 삼강은 한강, 서강, 용산강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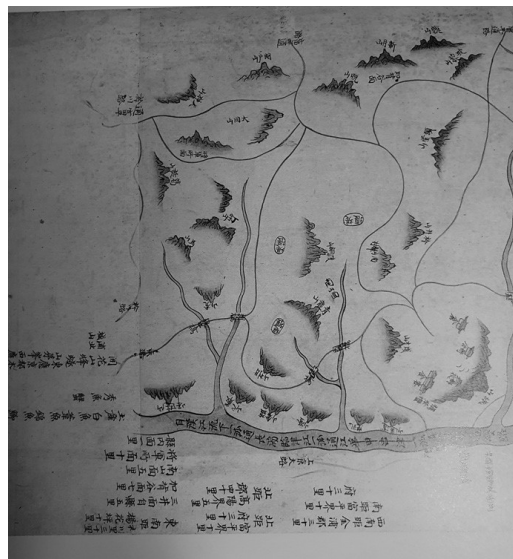


(자도성지삼강도)(조선강역총도 중 일부), 규장각 소장

그런데 영조연간인 1757년부터 1765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 지방지를 정리하여 『여지도서(輿地圖書)』를 편찬하였다. 이러한 정리과정에서 각 지방의 지도가 함께 등장하였다. 한성을 중심으로 그린 도성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군현지도가 독립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선유봉은 동일시기에 그려진 『여지도서』의 금천현과 양천현의 지도를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라 생각되나 여기서는 유사한 시기에 나온 아래 그림 <광여도>의 금천현(18세기 중엽)과 <해동지도>양천현(1760년대)으로 대신하였다. 금천현과 양천현의 지도를 다루는 이유는, 4장에서 언급할 것이지만, 선유봉의 경계가 오래전부터 두 현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유봉이 속하는 금천현과 양천현에서 각기 선유봉을 그렸고 자기 권역으로 표시하였다. 이 시기부터 선유봉 주변의 하천과 다리, 길 등이 자세하게 표현되기 시작하였고 지도에 방리나 특산물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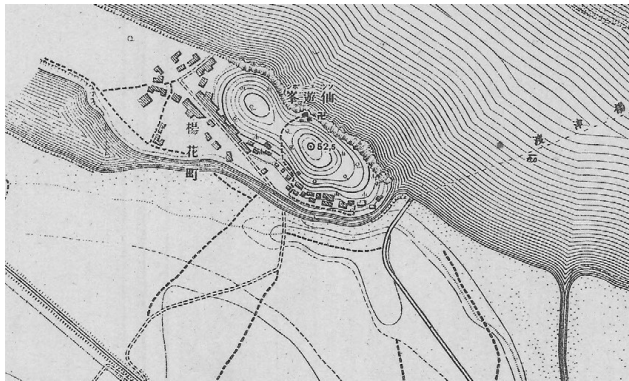


<광여도> 중 금천현,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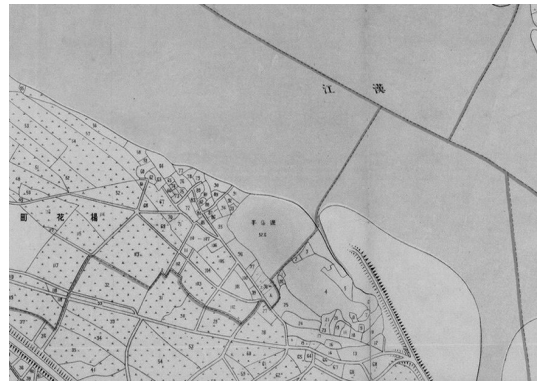


<해동지도> 중 양천현, 규장각

언제부터 선유봉 자체의 행정적 경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었을까. 시기는 파악할 수 없으나 1936년에 선유봉의 자세한 경계와 지형도를 그린 지도가 확인된다. 선유봉의 주봉은 당산 정쪽에, 또 다른 봉우리가 양화정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자세한 설명은 『잃어버린 선유봉』, 24-38쪽을 참고). 그 경계는 현재도 이어져 선유봉/도는 당산동과 양화동(양평동)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유봉과 주변, 1/10,000의 지도, 1936년. 시카고대소장



선유봉과 경계선. 경성부. <대경성정도>. 1936년. 서울역사박물관소장

4. 선유봉 관할기관의 변천

위에서도 언급한 바는 있으나 선유봉의 경계와 관할행정기관의 변천을 보는 것은 우리 문헌상의 선유봉의 기록을 보는 것과 상통하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선유봉 관할기관

시기	당산동	양화동(양평동)
고구려	잉벌노현(仍伐奴縣)	재차파의현(齋次巴衣縣)
신라 경덕왕16년	율진군 곡양현	율진군 공암현
고려 현종9년(1018)	안남도호부 수주에 내속(수주 율진군 곡양현?)	수주에 내속
인종23년(1145년)	(삼국사기) 검주(黔州)	
충선왕2년(1310)	금천현	양천현
조선 태종14년(1414)	(금천+양천) 금양현(金陽縣)	
태종15년	금천현	양천현
영조35년(1759)	(여지도서 상) 금천현 상북면 선유봉리	(여지도서 상 경기도 보유편) 양천현 남산면 양화리
정조19년(1795)	(호구총수) 시흥현 상북면 선유(봉)리	양천현 남산면 양화리
1895년	인천부 시흥군 상북면 양진리	인천부 양천군 남산면 양화리
1896년	경기도 시흥군 상북면 양진리	경기도 양천군 남산면 양화리
1914년	시흥군 북면 당산리(양진리)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
1917년	시흥군 영등포면 당산리(양진리)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
1931년	시흥군 영등포읍 당산리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
1936년	경성부 영등포출장소 당산정	경성부 영등포출장소 양화정
1943년	경성부 영등포구 당산정	경성부 영등포구 양화정
1946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이 되기까지 선유봉을 둘러싼 관할기관 및 지역 명칭은 여러 번 변하였다. 고구려시대에는 잉벌노현(仍伐奴縣)과 재차파의현(齋次巴衣縣)으로, 신라 경덕왕 때는 곡양현과 공암현, 고려 충선왕(1310년) 이래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주로 금주(시흥), 양천이라는 이름의 군현에 속하였다가 일제시기에 선유봉의 반을 차지하였던 양진리가 당산리에 합쳐졌고 1936년 경성부가 확장될 때 김포면 양동면에 속하였던 양화리 양화정이라는 이름으로 경성부 영등포출장소에 편입되었다. 그 이후 양화동과 당산동은 영등포구에 속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양화동은 법정동으로 행정은 양평동에서 담당하고 있다.

왜 선유봉의 소속이 복잡하게 되었을까. 그리 크지도 않은 봉우리가 오랜 기간동안 다른 행정단위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이 기이하다. 필연적 이유가 있었을까. 선유봉이나 선유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쯤 눈길을 주면 어떨까.

5. 선유봉의 다른 이름 꿩이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현재 선유도에서 선유교를 건너 선유도역으로 나오는 길은 양평2동의 견고 싶은 거리이자 봄가을로 마을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이 길에서 고양이를 상징하는 물건이나 그림을 전시하곤 한다. 이는 선유봉의 다른 이름으로 꿩이산(고양이산, 꿩이산)을 수용한 결과이다. 왜 꿩이산인가. 가장 일반적인 설은 선유봉이 고양이가 같이 생겼다고 붙은 이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다.

민공기는 꿩이산이라는 선유봉의 또 다른 이름은 고양이의 줄임말로 생겼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선유봉이 있던 지역은 본래 양천현에 속했던 곳이다. 양천현의 관아는 고양리에 있었다. 고양리는 꿩이말로 속칭”되었고 고양리가 꿩이로 변이하여 꿩이말이 되었다고 하였다. “양천현의 관아가 있었다면 고양리는 양천현을 대표하는 마을이다. 고양리가 양천현을 대신하여 양천현에 속해 있는 산이라는 뜻으로 선유봉을 고양리산이라고 칭하다가 꿩이산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그는 양화동의 쥐산도 뒷산에서 쥐산으로 변이된 것으로 보았다.

선유봉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의견과 유사하게 고양리를 꿩이라고 본 입장이 나무위키(2022. 12.11)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양천구의 가양동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1914년에 가마동(加麻洞)의 '가'와 고양리(古陽里)의 '양'이 합쳐서 가양동이 되었고 여기 고양리는 ‘꿩이말’이라고도 하는데 고양이의 방언인 ‘꿩이’마을인 셈이라고 했다. 장소는 양천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궁산(宮山)의 남쪽 양지바른 벌이 잘 드는 곳이라고 하였다.

선유봉에 살았고 선유봉을 보며 지냈던 이들은 어떤 의견인가. 우선 양평2동에서 오래 산 주민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옛 선유봉이 팽이(고양이, 혹은 핑이)를 닮아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선유봉에서 나서 양평동 6가로 이주하여 지금도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1935년생 신학식님은 선유봉을 팽이산으로 보지 않고 “팽이산은 목동에 절이 있던 데를 팽이산이라고 했어.” 그의 딸인 신미선도 “염창에 있어서 염창산이라고 했어요. 팽이산이라고 했었지”(선유마을이야기1)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선유봉에서 나서 양평동6가로 이주했다가 인천으로 이사갔던 1932년생 고 신봉희님은 “선유봉은 선유봉이지. 팽이산은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안양천 건너편에 큰 산이 있었는데 엄지미산(용왕산을 말함)이라고 불렀어요, 호랑이처럼 크다고. 그런데 그 앞에 지금의 인공폭포 있는 데에 쥐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강 건너편 망월동 쪽에는 코끼리 산이라고 불리던 산이 있었고, 옛날에 얘기로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강을 건너가면 코끼리가 있어 강을 건너갈 수도 없어 꼼작 못해. 거기로 가면 다 죽잖아, 쥐가 코끼리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 동네 전설 이야기. 하하하. 어렸을 때 들은 얘이지.” (선유마을이야기2)

같은 선유봉 출신인 신학식님은 염창산이 팽이산이라고 하였고 신봉희님은 선유봉은 팽이산이 아니라고 했다. 선유봉 출신인 두 사람 모두 일단 선유봉을 팽이산이 아니라고 한 것은 공통적이다. 왜 선유봉을 팽이산이 아니라고 한 것일까. 신봉희님 이야기의 역동적 주체가 되는 것은 고양이인데 선유봉출신자에게선 오히려 선유봉과 고양이라 명쾌하게 연결되거나 기억되지 못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런데 신봉희님은 선유봉이 팽이산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동네전설에서 나오는 고양이”를 상징하는 산은 없어 결국 그의 이야기 속의 고양이는 선유봉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위 이야기는 초식동물인 코끼리를 등장시켜 약육강식의 순환의 틀을 깨고 있다. 종손의 위치에 있던 신봉희님이 자기 마을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의 영향력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탄생하고 1932년생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무의미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을까. 흥미로운 이야기이지만 그가 이야기한 것을 다른 곳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포구에서는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연원을 찾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답을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혹은 지역민들이 어

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이 이야기는 더 풍부해질 수도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없어진 선유봉의 옛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을 방법은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의 양화도 시를 보며 상상 속의 선유봉으로 들어가 보자.

강 위에 솟아있는 봉우리 푸르고 우뚝한데,	江上峭峰碧兀兀(강상초봉벽울울)
강 사이 밤새 끼었던 안개 하얗게 자욱하네.	江間宿霧白濛濛(강간숙무백몽몽)
소란스런 매미소리 들려오는 수양버들 언덕,	亂蟬一帶垂揚岸(난선일대수양안)
부드럽게 노젓는 소리 한 폭의 그림 속으로 드누나.	柔櫓鳴歸罨畫中(유로명귀엄화중)



강 정 숙

- 한국근현대사 연구자(강제동원, 여성사, 독립운동사)
- 2010년 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로 박사학위
- 2011-2022년 현재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 2014-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획위원 및 이사
- 2019년 이래 영등포구 역사관련사업 참가

참고자료

경성부, 대경성정도, 1936년 (서울역사박물관소장)
 민긍기, 『영등포의 역사와 지명이야기』, 국학자료원, 2013
 서울특별시, 『동명연혁고 10, 영등포구편』, 1985.
 양평2동마을계획단, 『대담한 우리 마을이야기(선유마을이야기)1』, 2019
 양평2동주민자치회 이야기분과, 『대담한 우리 마을이야기(선유마을이야기)2』, 2020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립도서관, 『잃어버린 선유봉』, 2022
 이종묵,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서호편)』, 경인문화사, 2016
 이찬.양보경 편, 『서울의 옛 지도』, 서울학연구소, 1995
 조선총독부, 양화리 지도, 1936년 (시카고대학교소장, 김하나교수제공)
 조선총독부 내무국,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32
 최완수, 『겸재의 한양진경』, 현암사, 2018.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9837513&logNo=50037100253> 楊花渡(양화도) : 양화 나루터에서 - 柳得恭 詩 2022.12.10.

<https://m.cafe.daum.net/yonggo20/j7sS/226?listURI=%2Fyonggo20%2Fj7sS> 2022.12.12